

故 목정배 교수를 추모하며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저는 당신의 학위논문지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했던 당신의 명강의에 참석하여 당신과 눈빛을 맞추며 경청했던 수강생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는 제가 특별한 사람일 리 없지만 저의 불교 인생에서 당신은 각별한 분이셨습니다.

1960, 70년대에 세계적으로 불교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진원지는 서구였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거리에 포교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송유역불의 조선시대를 보내고 해방 후 서구화의 격랑 속에서 추종거리던 산중의 불교가 대중의 걸음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처음 친견한 것은 우리나라 포교당의 효시 격인 대원불교교양대학에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경기도 오산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로 일하면서 저녁 시간에 불교를 공부하려고 대원불교교양대학에 등록을 했습니다. 1982년 말로 기

억합니다.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TV에서만 봤던 당신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당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파이프를 물고 계셨습니다. 저벽강의 직전이었다 합니다. 요기를 위해 빵을 드시려다가, 머뭇거리던 저를 보시더니 "이리 와봐! 이거 하나 먹어!" 하며 불꽃 빵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것, 저것 물으시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업과 관련한 다른 일이 생겨서 수강료만 내고 결국 다니지는 못했지만, 불교를 공부하겠다는 초면의 젊은이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던 당신의 모습은, 불교학자의 롤 모델로 제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거침없는 분이셨습니다. 비판에 거침이 없고, 강의에 거침이 없으며, 학문과 예술에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계율학을 전공하셨지만, 계율의 정정인 무상계(無相戒), 즉 '타 나지 않는 계율'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그 대상이 남자인 여자든, 승인든 속이든 가리지 않고 돌직구 같은 비판을 던지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하여 비구니 스님들을 모시고 문답을 나누는 TV프로였습니다. 당신

께서 해설자로 출연하셨는데, 스님에 대한 정중의 질문들이 도에서 벗어나자, 마이크를 잡고서 "부처님의 생신 날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준엄하게 꾸중하셨습니다. 사회자는 쩔쩔매면서 사과하였고 분위기가 반전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의 위용을 실감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 전체가 보인다."고 하시며 몸소 강단 바닥에 드러누우셨다는 일화는 지금도 인구에 회자됩니다. 새해가 밝으면 연구실 책상에 앉아 붓을 들고 손수 연화장을 그려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박사학위논문을 들고 찾아보였을 때, 어서 오라고 반기시며 저에게 건네주신 '무(無) 자 연화장은 지금도 소중한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은 교성곡 '용성'의 가사를 단 한 자의 수정도 없이 일필휘지로 쓰셨다는 얘기는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당신께서 한국 불교학회회장을 맡고 계실 때 국제적인 불교학술회의를 기획하면서 즉석에서 그 이름을 '불교학결집대회'라고 지으셨던 일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작명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큰 업적은 '부처님 오신 날' 일 겁니다.

언젠가 엠베서더호텔 커피숍에서 당신을 모시고 차를 마시다가, 김익석 교수님의 기념비적인 논문 <고구려 승랑과 삼문화>의 작성에 당신께서 일조하셨다는 점을 알고는, 중문학을 전공한 제가 당신을 뵈옵게 된 일이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익석 교수님께서 송광사에서 승랑 스님에 대해 연구하면서, "애, 철우야 이것 좀 찾아봐라."고 명령하시면, 대장경이 있는 서고로 '법' 달러가 온갖 자료를 찾아 전해드렸는지요. 당신께서는 종이를 찾다가 테이블 위의 냅킨을 집어 펼치시더니 그때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국불교학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적히고 거침없는 당신의 체취가 묻은 냅킨은 비닐로 코팅하여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야의 '무주상(無住相)'이 계율의 '청정함'에 녹아 든 '무상계'를 실천하면서 거침없이 살아오신 보살의 삶. 생년월일시의 사주가 당신과 똑같다는 원효 스님보다는 세상에 오래 계셨지만 아쉽기만 합니다.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후학들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 원력으로 다시 오소서.

社說

법인법 갈등, 원만 해결 의지 보여라

법인법 갈등은 조계종의 현안 중 하나다. 조계종 내 대표 법인인 선학원과 대각회가 가장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종회장 항적 스님이 2월 12일 신년간담회에서 법인법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고무적인 사안이다. 이날 스님은 "법인법 논란은 총무원이 선학원, 대각회 등과 함께 협의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종정 전체 스님의 적극적인 중재도 요청했다.

실제 법인법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는 적지 않다. 선학원과 대각회의 주장이외에도 정관 변경을 총무원에 통보하고 사찰 등록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일선 법인들의 거부감은 상당하다. 법인 등록을 했을 경우 이익보다는 재산권 침해가 심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도 조계종단은 답을 내

야야 한다. 법인법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정혜사를 놓고 벌어진 선학원과 수덕사와의 갈등이다.

선학원은 동안거 해제일인 2월 14일 정혜사의 사찰운영권을 인수하게 받겠다는 의지의 공문을 수덕사에 발송했고 수덕사는 반발해 인수인계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혜사를 둘러싼 갈등은 표면상은 중첩 등록으로 인한 재산문제이지만 법인법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조계종 총무원이 제시한 법인 등록 기간은 6월까지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조계종은 이제라도 법인법의 문제와 일선 법인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경청하고 고칠 법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일선 법인들의 거부감은 상당하다. 법인 등록을 했을 경우 이익보다는 재산권 침해가 심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도 조계종단은 답을 내

'결사' 통한 실행은 삶의 질 바꾼다

결사(結社)는 불교에서 혁신운동을 말한다. 불교를 국교로 삼은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결탁해 세속의 명예를 얻는 승려가 많이 나타났다. 자기 수행을 통해 중생을 구제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잊고 선종과 교종의 명분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다. 그러다보니 세속적인 이익만 구하려는 이들이 많아져 몇몇 뜻있는 승려들이 모여 혁신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보조국사 지눌의 정혜결사(定慧結社)와 요세(了世)의 천태종 백련결사(白蓮結社)가 유명하다. 지눌 국사는 지금의 순천 송광사인 수선사(修禪社)에서 <정혜결사문>을 쓰고 세속화된 호국·기록·미신 불교를 타파하고, 타락한 형식불교를 척결하며 정법불교의 수행불교를 주장했다.

현재 각 사찰에서는 이런 결사의 정신을 계승받아 도반들이 함께 모여 지속적으로 수행 하면서 수행담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결사에 동참중인 사찰과 재

가단체들은 일반적으로 100일, 1000일 단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진한다.

정도회의 '정도회 만일결사'를 비롯해 청정승가불위대중결사의 '인거수행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흥법사, 미황사, 봉은사 등 10여 개 사찰이 대중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안거에 동참한 인원만 6000명이 넘는다. 결사에 참여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수행을 하니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또한 혼자 수행 하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결집이 흔들려 수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결사를 통해서 도반들과 일정기간 한 가지 수행을 함께 하고 공유하면 지속하기 쉬운 점도 동참인원이 늘는 원인이다. 결사가 새로운 실행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혁신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

불자 세상보기

국회 '특권 내려놓기' 공염불로 끝나서야



허남걸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권한이 많아지면 이른바 '특권'으로 불리는 영역을 향유하게 되는 것 같다. 그 가운데서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그야말로 특권 중의 특권으로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연봉이 1억 4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 외에도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200여 가지가 더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이니 달리 무슨 말을 더 하랴.

그들은 임명직인 국무총리나 장관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가진 특수한 신분의 공직자로서 고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합법적 권리 일 뿐이라고 손사래를 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

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굵지 않은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여론이 악화되거나 선거 거칠날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약(空約)을 정기적으로 남발해 왔다.

얼마 전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일반국민들은 그의 말을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치적 구두선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야당 대표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그만큼 배경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치인들이 천명한 공약 가운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약속만 해도 10가지가 넘기 때문이다.

예컨대, 면책·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세비 30% 삭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국립참여경선 법제화 △국민에게 공천권 환원 △공천 금품수수 형사처벌 강화 △부정부패 원인 제공자가 재?보

선 비용부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 △국회예결특위 상설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공약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는 국민들을 기억상실증환자 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안하무인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와중에 그들은 스스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어릴 적 읽은 동화책에서 우리는 양치기 소년의 최후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장난스럽게 내뱉은 조그만 거짓말의 과보가 그럴진대 유권자들인 국민을 상대로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수도 없이 반복한 그들의 업보는 실로 막중할 것이 틀림없다. 차마 그들에게 유도유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만은 꼭 명심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차분하게 되돌아보면 국회의원들의 특권 운운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함께 지은 공업(共業)의 과보인지도 모

른다. 국회의원들을 욕하면서도 바로 국회의원들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가? 여기에는 시민운동가, 교수, 기업가, 편집자, 약사, 종교인 등 어떤 분야의 유명인사도 예외가 아니다. 십 수 년 전에는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가 대통령 선거에 직접 나선적도 있지 않던가?

자신의 분야에서 조금만 두각을 나타내면 너도 나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결과가 결국 정치인들에게 흔히 말하는 '특권'을 허용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르겠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더 이상 정치인 되기를 동경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다. 그래도 기어이 나랏일을 하겠다고 나서서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의 공복(公僕)이 되기를 굳게 맹세하면 될 일이다. 그럴 때 비로소 정치인들은 모든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이건 아니다'라는 거부감을 떨칠 수 없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해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인사총괄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발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영주지국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8977	부산지사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긍지·실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명	연락처
부산지사	박경수	010-9819-8345
대구지사	손문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